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i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6호 2008년 7월



성장의 계절, 7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3:16)

말씀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
성장이 있는 7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NDEX

2 영어 잘하는 방법
4 충성으로 이룬 사명, 새로운 부르심에 도전하다!
11 긴강한 가족을 만들자!



9 | 구봉산, 명봉



13 | 몬트리올 예수

영어 잘하는 방법
듣고 소리 내서 읽어라?



이 요 셉 선교사 (성시본부 전문통역위원)

영어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에게 영어는 언어 이상의 그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애증의 대상이라고나 할까? 달래 보기도하고 얼러 보기도 하지만 왠지 가까이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관계처럼.

사실, 청소년들의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잖이 고민이 되었다. 짧은 지면에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많은 영어공부 방법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갖가지 비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바닷물에 물 한바가지 붓는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로서는 해외에서 전문 통역사와 번역사로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영어지도를 해온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영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1995년 서른 중반에 뉴질랜드에 간 필자 역시 영어에 관한 한 대다수 평범한 한국의 가장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불어가 모국어이며 독일어로 비즈니스를 오래하고 영어가 유창한 한 친구를 알게 됐다. 그에게 영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히 "영어 성경을 소리 내서 읽어라"였다.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나는 그때 그 한마디를 마치 쿵푸 스승의 간단한 가르침을 따라 우직하게 수련하는 제자처럼 실천하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웅변, 연극,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악, 목소리연기, 뉴질랜드에서는 라디오 방송 뉴스등과 관련이 깊었던 필자는 영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몇 가지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서 훈련하기 시작했다.

웅변할 때처럼 적당히 큰소리로,
뉴스 할 때처럼 의미단위로 명확하게 끊어서,
성악훈련 할 때 Diction(딕션) 하듯이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원어민처럼 가능한 한 빠르게,
연기하듯이 감정을 실어서 영어가 우리말처럼 느낌으로 와 닿도록 읽자!

또한 영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사를 온몸으로 느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어떤 때는 성경구절 한 줄을 사오십 번씩 읽어도 맘에 들지 않아서, '원어민도 이보다 더 잘 읽지는 못 하겠다' 는 생각이 들 때 까지 반복해서 읽곤 했다. 그 결과, 외국인 영어교사로부터 "Joseph(요셉-필자의 이름), 너하고 전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원어민이라고 생각할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중국에서는 필자보다도 한참 젊은 리양이라는 사람이 '크레이지 잉글리시' 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법이라는 것이 3-ly 라는 것이었다. 내용인 즉,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As loudly as possible (가능한 한 크게)
As clear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필자가 연습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런데 귀국 후 필자는 국내에서 영어지도를 하면서 영어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각기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단위" 또는 "Chunk(덩어리)"로 읽으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영어공부 비법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이런 것들이 비법이라면 비법이지만 어찌보면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필자가 훈련한 방식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많은 방식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영어교육 방법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어공포증과 아울러 영어에 관한 수많은 오해를 심어주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언어습득방법이 무슨 대단한 비법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영어 여전히 실패의 길로… 듣고 말하기는 나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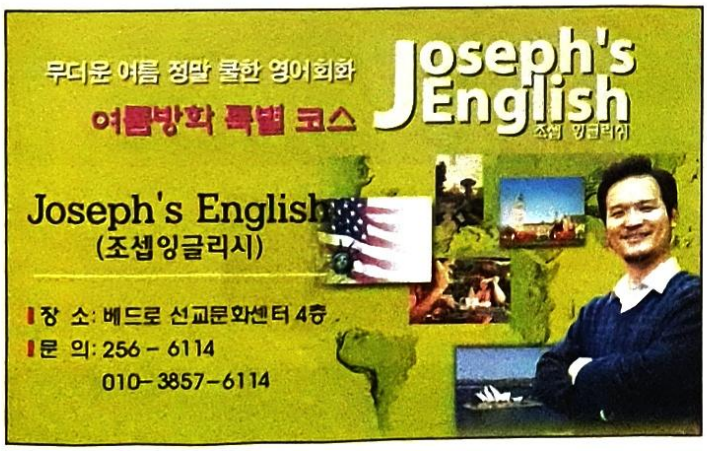
지난 십 수 년 간 가족과 함께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약 1년 전 귀국한 필자로서는 조국의 발전된 모습이 놀라웠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영어에 관한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과거 우리 어른들이 걸어왔던 실패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여전히 문법과 독해, 단어암기로 귀결되는 영어공부, 그리고 시험점수의 높낮이에 의해 영어실력이 평가되는 현실!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영어 말하기,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학교 시험점수를 위해선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금 점수 하나라도 더 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나중에 대학가서, 아니면 해외 유학이라도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면 듣고 말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문 번역사, 통역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도 확인하고 실제로 유학생들을 많이 접하고 가르쳐 본 필자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세대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생스럽게 영어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진리는 때로는 쉬운 길, 듣고 소리내서 읽어라

진리는 때로 너무나 쉬워서 좀 싱겁기까지 한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기독교 구원의 진리가 너무 쉬워서 다른 수행과 고행으로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영어 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듣고 소리 내서 읽어라." 이다. 어찌면 진부하기까지 한 이것이야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처럼 모든 영어 잘하는 비법서의 기본이요 '메직' 방망이인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와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끝으로 필자의 일천한 경험이 조금이나마 영어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교계의 몇몇 뜻있는 목사님들 등 지도자들과 춘천의 영어인구 저변 확대와 선교영어훈련을 위해 효과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조만간 좋은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게 될 것 같다. 영어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 치유사역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요 셉 선교사 (Joseph Lee)
뉴질랜드에서 12년간 현지인 교회(아시안 이민자 담당 목회사역)외 한인 교회에서 사역.
뉴질랜드 신학대학 목회학과 크리스천 교육학 전공.
전문통역사와 번역사로 활동.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자란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2007년 초 귀국 후 현재 조셉잉글리시 영어강좌를 통해 영어지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웃나라 일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임엘리야(용갑) · 홍숙화 선교사 (임경지(8), 임경원(7), 임경아(5))

대학교 1학년(20세) 때 UBF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캠퍼스 전도와 일본선교로 이어졌다. 결국 1987년 21살 때 UBF유학생선교사로 파송 받아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유학생활 대부분은 동경UBF 센터를 개척하는 등 캠퍼스 전도와 교회 봉사가 주된 삶이었다. 자신의 열심과 공적 세우기가 앞선 나머지 5년간의 선교생활 끝에 좌절하고 4년간 믿음생활의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1995년에 다시 일본에 들어가 1997년에 JTJ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1999년부터는 치바시에 있는 치바벧엘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2008년 4월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본인성도교육을 담당하여 섬겨왔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지원 속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에서 가장 큰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인 '동경그리스도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본선교를 위해 16년간의 선교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 겸 연수를 위하여 춘천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선교에 열정과 열매가 있는 교회들의 모델을 찾아서 배움과 교제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일본교회의 현황

1549년 프란시스 사비에르부터 시작한 카톨릭 선교는 460년,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150년을 맞이하였다. 한 때는 인구의 3%까지 부흥한 시기도 있었지만 집요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개신교 역사 150년을 맞도록 복음화율 1%의 장벽을 넘지 못해 '선교사의 무덤', '선교의 불모지'로 불려왔다.

'2007년 일본 개신교교회통계' [CIS뉴스](2008년2월호 No.70)에 따르면 일본의 개신교의 교세는 아래와 같다.

해	인구	교회수	회원수	예배수	회원%	예배%	회원/교회	예배/교회	수세자	CS
2007	127,053,471	7,832	568,832	281,211	0.45	0.22	73	36	8,337	60,075
2006	127,055,339	7,781	556,055	276,686	0.44	0.22	71	36	8,555	61,364

실제 예배출석수는 0.22%정도로 미전도종족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5명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일본은 450여명에 1명이 기독교인인 셈이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도의 통계를 볼 때, 교회 수는 51개가 늘었으나 수세자 218, CS출석자 1289명이 준 것이다. 교회당 예배출석자수의 평균은 36명이나 23-24명이 중간치이며 가장 많은 것이 10~15명의 교회이다. 또한 일본복음주의협회(JEA) 등에 따르면 전체 도시 692개 중 10개시에는 교회가 전혀 없으며 86개시에는 교회가 각각 하나뿐이며, 읍 단위로 내려가면 전체 2407개 읍 중 1633개 지역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

선교의 긴급성과 중요성

년간 수세자가 1만 명도 안되는 일본이 경찰청의 보도에 의하면 자살수가 10년 연속 3만 명을 넘는데, 그중 한참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30대가 14%, 40대 15%, 50대 21%를 차지하여,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의 아이들이 고아가 된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십대는 85%가 자신들이 왜 사는지 모른다고 하고, 36%가 자신의 현재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중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십대가 11%(미국의 3배)나 된다고 한다.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선진국인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웃나라의 신음소리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일본선교에 대해 무관심한 한국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역사의 아픔으로 인한 미움과 증오가 원인이 된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품지 않을 수가 없다(마5:43-44, 18:21-22).

둘째 열매의 문제이다. 다른 선교지에 비해 선교비는 많이 들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현재 서양선교사들이 매년 10%정도 철수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많은 투자에 비해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며 우리 지체의 고통을 무시하고 내버려 둘 수 없다(고전 12:26-27).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지금이 바로 일본선교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뉴스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어의 선호도는 영어, 중국어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차 일본교회의 부흥은 곧 세계선교의 완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축복하신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교회가 회개하고 부흥하도록 한국교회는 일본인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사탄의 올무와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선교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며 열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와 선교동역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Back to Jerusalem의 세계선교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사역비전

우리 가정은 일본선교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1. 한국에서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프로그램(예배,양육,전도,소그룹 등)을 일본교회에 소개하며 접목시키는 일에 모델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2. 통역과 번역사역(일본어, 중국어)을 통해서 한국의 좋은 열매들을 일본교회와 신학교, 중국교회와 신학교에 소개하여 아시아선교에 공헌하는 것이다.
3. 일본에 있는 중국인(약200만 명)과 재일조선동포(약60만 명)를 향한 선교전략과 교회개척의 돌파구를 찾아 추수의 일꾼들로 동원하는 것이다.
4.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80교,1만1천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일본선교와 북한선교의 동역자로 동원하는 것이다.

[춘천시 효자2동 베드로선교센터 300호실 연락처:010-2222-2296, 252-8124]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수강생 모집

취업을 걱정하십니까?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른 5만 5천명의 요양보호사 인력필요
- 6주 교육 후 시험없이 국가자격 취득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 자격 획득

개강 4월 21일(월) 개강 이후 수시모집[주간 · 야간 · 주말반]

강원도 지정 교육원

기존의 간병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최고의 강사진
- 탁월한 교통 요충지
- 체계화된 교육내용



[섬김과 나눔 요양보호사 교육원] ☎ 241-8801 · 241-8802
(운교동 파출소 앞, 외이신협, CBS기독교방송 3층)

충성으로 이룬 사명, 새로운 부르심에 도전하다!

이번 시간에는 동부장로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신 임신영 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임신영 목사는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헌신하신 분이다. 1986년 부임 이후, 동부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전도의 열정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회연합을 통한 춘천 성시화에 쓰임 받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셨다. 22년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목회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새로운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도의 열정으로 걸어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은퇴와 함께 원로목사, 공로목사로 추대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자를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좋게 인정해 주어 은퇴와 함께 원로목사로 추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노회에서도 공로목사로 인정해 주심에 감격할 따름이다. 조기은퇴로 젊은 사역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롭게 나에게 맞는 봉사의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린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동부교회에서의 목회사역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모든 사역들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 있게 생각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1986년 교회에 부임해서 중요하게 여기며 시작한 사역이 있었다. 우리 동부교회는 장로교회로써는 강원도에서 모교회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라는 강한 확신을 주셨다.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청의 도움을 받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월드비전과 연계하여 이 일을 돕고 있다. 또한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오지지역에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서 의료선교사역을 추진하였다. 시민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하셨다. 춘천에 오기 전에 서울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 창립멤버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춘천경실련을 창립하게 되었다. 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님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참신한 정신을 가지고 경실련을 창립하였다. 처음 4-5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의 질책도 받았지만 10년 동안 공동대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은 춘천지역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철학이 있다면?

지금까지 목회사역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왔다. 후회 없는 목회사역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70년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교역자로서 활동할 때에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목회사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주제는 "전도요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이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 가서 성장하는 교회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반면에 급격히 성장하는 교회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도전을 받는 것은 '시카고의 무디선교센터'를 방문하였을 때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선교센터를 보면서 교회존재 목적과 목회사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며 목회자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후 논문에 쓴 대로 목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때부터 어떤 모임을 가서 설교를 하든지 10분 이상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실용주의가 출범한 이후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우리 기독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는 시대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70년대에는 '새시대목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고민을 하였다. 이것이 80년대에는 '바른목회연구회'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목회연구회'로 변신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목회에 도전을 하고 있다. 교회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 바른 정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최근에 진행되는 촛불문화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통령도 국민들도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동부교회의 원로목사와 노회의 공로목사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다. 은퇴는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적인 사역은 아니겠지만, 내게 맞는 사역들을 봉사적 차원에서 감당하고자 한다. 우리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운 콜롬비아 후사신학교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몇몇 신학교 교수사역을 지속적으로 섬길 것이다. 또한 멘토사역으로서 교회성장과 관련하여 후배 혹은 제자 목회자들을 격려하려고 한다. 은퇴 후 살게 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서재를 마련해 놓았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며 충분한 독서를 하려고 한다.

[5면에 계속]





"은퇴는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회"

[4면에 이어]

부족한 종이 은퇴 후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국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역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실수가 없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교회의 분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나누어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성령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개교회는 자기가 속한 영적인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 동부장로교회와 제일장로교회는 원래는 한 교회였으나 교회 이전문제로 분열되었던 역사적 상처가 있다. 분열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17년 전 창립 50주년 예배를 합동예배로 드렸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지금도 마음에 그때의 감동이 남아 있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순하고 평범한 이 진리를 기억하고 연합을 실천하기를 부탁드린다.

[취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라!

-청소년 비전캠프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향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큰 꿈을 꾼다. 대개는 공부를 잘해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명성을 얻거나 많은 돈을 버는 자녀들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부모들의 이러한 기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그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양육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란 어떠한 자녀이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란?

성경 인물 중 하나님께서 쓰셨던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라고 고백하였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둘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지혜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가 있었다.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존재하되 세상과 구별되어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다. 요셉은 원치 않던 고난의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며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다니엘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주변사람들에게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삶을 살았다. 셋째, 요셉과 다니엘은 동일하게 자기 고향을 떠나 **〈타문화 경험을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가졌다. 요셉은 당시 최강국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국제적인 흐름을 체험하며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자신을 헌신하였다(창45:5-8, 단9:1-3).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영적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신다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환경적으로 볼 때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라났다. 부모의 품을 떠나,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들 밑에서 교육받으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교육함에 있어서 물질적 환경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 또 한 가지! 요셉과 다니엘을 본받는 자녀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맡겨야 한다.

'청소년 비전캠프'

- 일 시: 2008년 8월 4일~12일 (8박9일)
- 장 소: 중국 대련, 단동, 백두산
- 프로그램: 독립운동 유적지, 단동가나안농군학교훈련, 조선족교회집회, 백두산등정기도회 등
- 경 비: 700,000원(예상)
- 마 감 : 7월 15일까지 선착순 30명
- 문 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1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은 다음세대 하나님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탁하셨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이 마지막 명령은 교육을 통한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라는 말씀이다. 21세기는 선교적 사명이 완성되는 위대한 세기가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현재의 청소년들이다. 성시화운동본부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비전캠프'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쓰임 받는 하나님나라의 인재가 양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글. 성시화운동본부 정 재 호 사무총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생동하는 신앙공동체

춘천 한길교회는 지난 1984년에 창립된 교회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만남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다. 또한 한길교회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를 지향하는 바 그 의미 있는 한길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춘천 한길교회(이인호 목사)편입니다

이인호 목사와 한길교회



서울 만나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섬기던 이 목사가 오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춘천 한길교회에 부임한 것은 지난 2003년 11월의 일이었다. 전임자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잘 성장하던 교회였지만 이 목사의 부임 즈음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교회의 영적 토대는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어린이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를 위시하여 각 기관과 모임에는 봉사자들을 찾기 힘들었고 교회의 연령층도 50-60대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목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이 목사는 새벽마다 밤마다 청지기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한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과 나눔이 영향력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야곱처럼 기도하였다. 5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춘천의 어느 교회보다도 내실이 있고 생동하는 교회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다.



이인호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 목사는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경기도 이천이 고향이던 이 목사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 후로는 주로 서울에서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목사의 부친은 일찍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를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가정 부양의 문제로 실제 목회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 앞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졌던 부친은 이 목사를 목회자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기도를 올리게 된다. 어린 마음의 반발감 때문이었을까, 이 목사는 서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목회는 결코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장차 목장을 경영하며 그림 같은 전원생활을 꿈꾸던 이 목사는 그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으나 주님의 뜻은 결코 달랐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의 수일간의 금식기도와 사단 군종병 시절, 실명위기까지 갔던 교통사고를 통해 이 목사는 외길인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음전파자의 길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나아오게 된다. 그 후 이어진 신학공부, 졸업 후 1만여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만나교회에서 수년간의 부목사 생활을 통해 지금의 목회의 골격을 이루었다고 이 목사는 회상한다.

강력한 문화 · 전도 · 교육사역

이 목사가 한길교회에 부임한 이후 그가 추구하는 목회는 영혼구원에 힘쓰는 전도사역과 함께 강력한 문화사역이다. 부임 직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일먼저 〈문화교실〉을 열었다. 어린이와 장년을 고루 배려한 프로그램이었다. 어학과 취미생활, 예술생활, 문화생활을 주제로 복음과 연결을 지으려는 시도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예배도 열었다. 비록 5명의 어린이들로 시작했지만 질 높은 영어교육과 함께 성서교육이 이루어진 현장이었다. 지금은 어린이교회학교만 100여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화교실의 노력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서의 '교문전도'가 효과가 있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봄과 가을에는 솜사탕, 겨울에는 오뎅을 제공하며 이어지는 '교문전도'는 '교문전도하면 한길교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깊었다.

매주 이틀은 '사랑의 도시락'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자연스럽게 빵과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가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천국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랑의 도시락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도 벌어진다. 이 역시 동일한 취지로 효과적인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몇 년 전 청년들을 위한 '비전 하우스'가 개원되었다. 비전 하우스는 인근 아파트 몇 채를 임대하여 남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실비를 통해 유학생들의 신앙의육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군선교도 교회의 자랑이다. 교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매결연 형식으로 풀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를 위문하고 예배하고 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도 정식 인가를 득했다. 20여 명으로 출발하였는데 거의 100% 어린이교회학교로 인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도의 결실은 신구약성경공부와 믿음생활, 제자양육을 담고 있는 '한길성서대학'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비전 소그룹'은 특성화된 은사소그룹으로서 교우들의 풍성한 재능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인호 목사는 앞으로 10년을 "복시"와 "가정"을 키워드로 사역하고자 기도하고 꿈꾸고 있다고 말한다. 경춘 국도의 확장으로 실버도시 춘천을 준비하면서도 젊은이와 아랫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력한 하나님나라의 작은 모델의 꿈이 이 목사의 비전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목사의 파이팅과 지혜한 꿈의 성취를 기대해 본다. (※이인호 목사는 교회음악을 전공한 박종에 사모와 현재(초등5), 현준(초등3)이 있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없이 취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특 특 : 선착순 접수함 본 자격증을 취득 하시면 제가복지시설에 취업이 가능하며, 노인요양원 시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교육시작 : 현재 접수중(나이, 학력, 구분없이 누구나 다 신청 가능)

▶ 요양보호사 신규생 모집

■신규 주간반 : 7월 7일부터 개강 40명 현재 모집중 ■수강시간 : 오전 9시 ~ 6시까지 8시간, 수료기간 45일

■신규 야간반 : 7월 7일부터 개강 40명 현재 모집중 ■수강시간 : 오후 6:30-10:30분까지 4시간, 수료기간 90일

■국기 자격증반 : 7월5일 개강 현재 모집중 ■사회복지사반 : 40명 ■간호 조무사반 : 20명

* 참고 : 국기 자격증 200명 이상 취득 권장 * 별도로 수료 후 계속하여 국기 자격증 배출

※ 경력자반 – 노동청의 보조로 50%-70% 수강료 지원받음.

* 넓은 주차시설 * 서울버스 운행 * 쾌적한 공간

※ 기존의 간병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요양보호사)국가 자격으로 기획입니다.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033)241-2660 242-7664(FAX겸용), HP 011-448-7660 춘천시 중앙로 192번지 (중앙 목공산 옆)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행!



요양보호사 필요하신 시설이나 개인간병 필요하신 분 연락요망!

| 영혼의 양식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21-23



조 덕 준 목사 (신북교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

학생들이 하는 우스운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얼굴이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볼 땐 영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은 자유야 그러나 영원한 쪽팔림이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들 이야기처럼 착각은 자유입니다. 비록 언젠가는 쪽팔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 번 백번 착각하더라도 잠시만 창피하면 되지만, 성도라는 착각, 믿는다는 착각, 신앙인이라는 착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온지 팔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땅에 사는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착각이 아닌 제대로 보며 사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2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라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9가지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영원한 창피를 당하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많이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을 베풀면서 주를 섬겼건만 주님은 알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그날 그 아침 거기서 많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고 고백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는 성도, 힘이 있는 성도들로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일도 좌지우지하려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입니다. 교회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하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말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어하니까, 복 받는다고 해야 좋아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나 편안히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합니다. 도통 고난을 싫어하여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섬김과 희생이 사라지고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라 하면서 얼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도시 이 춘천에서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신앙, 그래서 장차 그날 아침 거기서 난 너를 잘 안다 수고했다 하는 칭찬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사색의 창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김 진 숙(봄내호스피스 기쁨의집 간호부장)



아름다운 여행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칭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리 편치 않은 마음이 있어 함께 우는 법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호스피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말기 암 환자와 상담을 하던 중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슬픔은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없어요. 다만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음을 수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희를 위로 하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를 당할 때마다 슬픔은 배가 돼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많은 암환자를 케어(care) 했으며, 죽음의 현장에서 많은 환우의 임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마치 죽음을 이기는 특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앙가이드 역할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개 호스피스 시설을 찾는 분들은 고단한 삶을 돌아볼 틈조차도 없습니다. 거기엔 보호자도 없으며,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욱 참기 힘든 외로움과 소외감, 감당치 못하는 신체적 무력증,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누군기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소변을 볼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넘어기지 않으며, 지신의 상태를 알리고 싶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공포를 이성적으로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주며, 진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과 마음, 그리고 조용히 손잡이주고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근심, 불안, 슬픔마저 숨기고, 곧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음하는 말기 암 환우 분들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묶 좀 주세요! / 속이 답답해요! / 나! 너무 아파요! / 혼자 있어 너무 무서워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죽어야 되는 과정이 무서워요."

보통 사람은 잠을 잘 때 누워서 자지만,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 길고 고통스런 밤을 앉아서 견뎌내는 환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통은 그들의 몫이니 혼자 감당하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언제 누기 암에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는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습니다.
평탄 대도와 비탈길, 꽃밭과 가시밭길이 함께 공존합니다.
-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중에서

말기 환우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이야 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세상엔 또 없을 아주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의 삶도 놀랄 만큼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256-1260-1 F. 033) 257-1260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과 희망을

-단 1만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 보세요

북한은 수해로 흉년이 되고,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어지자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가중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네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가르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강조하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 **1만원의 후원은** 북한 동포 1명이 한 달 동안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한 가정이 약5만원 정도로 1달을 생활).
▶ **우리하나' 프로젝트는** 한민족복지재단 주관 하에 북한가정사역연구소,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챤투데이, 브이코아, 세이하쿠닷컴이 함께하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보내는 범국민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한민족복지재단 춘천지부(이사장:김주완목사)는 북한동포의 인권회복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임쓰고 있습니다. (사무국: 011-663-3595, 010-2030-8150)
계좌번호 : Y신협 04373-13-031099 (예금주 : 김 성 호)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주님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한 사람

(아 1:3)

믿음의 기업 반석수산 고재호 장로(나눔교회) 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 년을 지내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말하는 너희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약4:13-17)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며,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에게 충성하며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겠음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마6:24)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돈의 위력은 너무도 강력하다. 성도들조차도 재물이 우상이 되어 물질의 신인 맘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귀한 장로님을 추천할 수 있어(마6:32; 고후2:14; 롬16:1) 기쁘기 그지없다.

믿음으로 걸어온 삶의 길을 돌아보다

고재호 장로는 농사로 15년, 10년의 전자대리점 경영, 이후 지금까지 반석수산이라고 하는 물고기 양식업을 13년째 경영하고 있다. 한때 잘나가던 젊은 농사꾼(43명의 작목반을 거느린 작목반장이며 그의 농산품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의 농사비법을 전달하는 강의를 오래할 정도로)에서 새롭게 시작한 경영자의 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가 않았다. 2-3번의 부도위기로 전자대리점은 결국 접고, 어려운 여건에서 새롭게 시작한 수산 양식업과 횟집-반석수산, 동면 장학리 소재-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영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삶이란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히11:38). 지금까지 찾아온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한 비결을 묻자 고 장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련과 고난도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훈련하시는 성장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의 믿음과 긍정적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시119:75)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이야말로 바로 고재호 장로의 찬양이며 고백이었다.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처음부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남선교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새롭게 부임해 오신 부목사님께서 지도목사님이 되셨다. 그때부터 지도목사님과 나오지 않는 회원들을 심방하게 되었다. 열심 있는 부인들의 협조를 얻어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을 알아내고 저녁 6시부터 밤 1, 2시까지 심방하였다. 신앙이 없는 남편들이었기에 5분의 짧은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충분하였다. 고 장로는 그때 드렸던 5분 예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열정적인 심방사역으로 인하여 남선교회는 40명의 회원에서 80명이상 갑절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이때의 부흥을 고 장로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전자대리점 폐업 후 새롭게 수산 양식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청지기가 되게 하셨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재원을 마련하는 등 믿음으로 교회개척을 열심히 도왔다. 교회를 개척한지 10년이 지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물질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건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래서 작정기도를 시작했다. 장사를 마치고 밤 11시에 교회당을 찾아 기도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작정기도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위원장으로써 예배당 건축을 섬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원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 감당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힘주어 고백하는 고 장로. 충성된 일꾼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1남 4녀를 교회 중심으로 키운 고 장로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결혼과 함께 자신을 주님께로 끌고 간 아내(함금옥 권사)를 자녀와 당신의 울타리 같은 존재였다고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는다(잠31:28).

수족관 앞에서

고 장로와 헤어지면서 그의 횟집에 있던 수족관과 양어장을 잊을 수 없다. 온 세상은 거대한 수족관이 되어버렸고, 현대 인류는 양어장 속에 갇혀 사는 물고기 신세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구체적으로 돈을 이기고 맘몬을 이기는 믿음이다. 돈의 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크리스천조차도 돈 앞에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일진대 대자연 속(하나님으로 사는)의 생활양식이 수족관 속의 생활양식(맘몬이 이끄는 대로 사는)보다 못하진 않을 것이다. 고 장로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의 믿음을 따라 시편 23편을 다시 불러보자.

[취재 이영규 · 사진 김미경]







우리 곁에 있는 山
구봉산, 명봉 (따로 또 같이)


구봉산 천경, 구봉의 윤곽을 볼 수 있다.

구봉산, 명봉 개요

춘천시내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긴 능선이 자리하고 있는데, 원창고개로부터 시작하여 수리봉, 대룡산, 명봉으로 이어져 구봉산에서 끝이 나는 16.2km의 능선이다. 구봉산은 그 능선 끝에 위치하는데, 만천리와 장학리, 감정리 사이에 자리 잡은 441.3m 높이의 산이다. 흔히 쟁버리 길이라고 알려진 46번 국도를 끼고 있는 산이다. 구봉산은 춘천시민들에게 산 자체보다는 구봉산 전망대나 카페로 더 많이 알고 있을 듯하다.

구봉산은 이름에 있듯이 9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능선에 오르면 9봉을 걷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또 멀리서 바라보는 산 모습에서도 9봉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결국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런데 산 밑에서 올려다보면 산의 굴곡을 느낄 수 있다. 아주 잔 근육을 갖고 있기에 유심히 보아야 알 수 있다.

명봉은 대룡산과 구봉산을 이어주는 봉우리이다. 높이가 643.3m이니 삼악산과 비슷한 높이이지만 대룡산에 붙어 있어서 하나의 봉우리로 이름 붙여진 듯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이름이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봉우리이다. 그런데 이 봉우리는 교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룡산과 구봉산, 그리고 느랏재로 이어지는 통로에 자리하고 있다.


▲ 명봉, 대룡산 능선 중에서 제일 앞쪽에 자리한 산이 명봉이다.

등산로





지도와 코스 소개에 나와 있듯이 구봉산과 명봉을 이어서 등산할 수 있도록 잡았다. 물론 구봉산이나 명봉 하나만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라고 할 수 있는 산들이다. 들머리(등산로 입구)가 구봉산전망대나 구봉산휴게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등산로에 있는 이정표에도 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는 옛날에 쓰던 이름이다. 지금은 이 상호로 사용하지 않지만 춘천시민이라면 아마 익숙할 것이다. 들머리에 있는 구봉산휴게소는 현재는 카페 '야곱'(JACOB ′ S STATION) 건너편이고, 구봉산 전망대는 카페 '하얀 추억' 건너편이다.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곳을 지나치면서도 등산로 입구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쉽게 찾을 수 있다. 구봉산전망대 쪽은 많이 가파르고 구봉산휴게소 쪽은 비교적 산행하기가 쉽다. 중턱에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활공장이 있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포장해 놓았기 때문이다. 활공장에서 조금 더 오르면 능선길을 만날 수 있다. 또 '코스 1'은 소개된 코스의 역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쉽다. 구봉산에서 명봉을 오르면 600m의 높이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하면 들머리인 거두리 방아골이 명봉 중턱에 위치하므로 보다 쉽게 산행할 수 있다.

구봉산과 명봉의 매력

1. **부담이 적다.** 시간으로도 접근성으로도 그리고 중턱에서 시작되는 관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산에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깊은 산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다. 춘천에 있는 산들이 그러하듯 산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울창하다.
2. **능선으로 이어지는 연계 등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이나 체력을 고려해서 다양한 코스를 계획할 수 있다.
3. **탁월한 조망.** 그런데 처음 오른 사람이라면 구봉산 정상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산불 감시초소를 보고 그곳이 정상이라고 알 수도 있는데, 그 표지판에서 감정리 방향으로 50m를 더 가면 시야가 사방으로 열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구봉산전망대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 또 활공장에서도 춘천을 조망할 수 있다.


▲ 구봉산에서 바라본, 대룡산으로 이어진 능선


▲ 명봉에서 바라본, 구봉산


▲ 활공장에서 본 춘천 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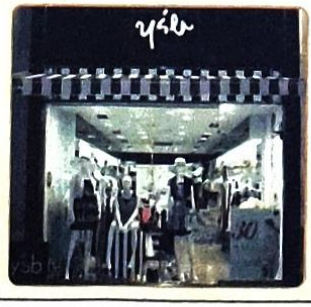

▲ 구봉산 정상에서 본 춘천


▲ 패러글라이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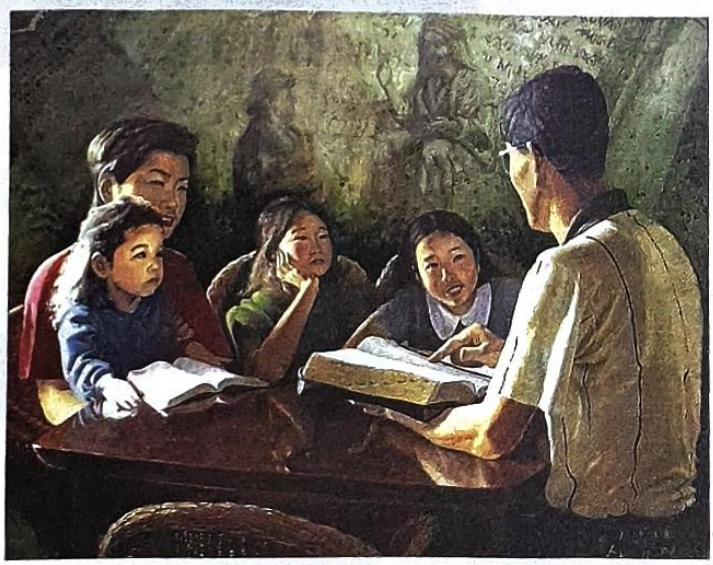
[편집위원 고 재 만]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춘천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 직원구함(경력자우대)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신규인作 쉐마 SHEMA / 유화 · 100호 / 1998년 제 6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우수상 수상작

작품명 [쉐마(SHEMA)]는 히브리어로 '듣다', '청종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은 매우 평복한 일상복 차림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뒷모습이기 때문에 그의 인상이나 표정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언하는 말씀이지 전하는 이의 꾸밈이나 언기가 아닐 것입니다. 한 결 같이 그들의 시선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집중됩니다. 인물들의 주위에 밝음과 어떤 신비로운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놓여있고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자신을 꾸미거나 드러내지 않으며, 듣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믿음대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쉐마'의 공간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사는 가정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깨어 있으리라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고
보이는 것만
모두라고 생각했네

기도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곁에 계시며
항께 계심을 알았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리라
집착을 버리리라
그리하여
마음을 지키리라

은혜의 말씀
오래 기억하며
깨어 있으리라

-시인. 박 유 석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7

암에 대한 이해

"내가 왜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의사로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고석연 (가정의학과)

암이란 질병은 muti-factor(다요소), multi-step(다단계) 질환이라고 한다. 암에 걸리려면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인자들과 암을 키우는 인자들이 작용을 해야 하고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몸의 방어 기능이 망가져야 하며 또한 몸에 생긴 이상이 오랜 시간동안 여러 단계를 걸쳐서 암이란 질병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기 쉽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폐암환자가 나에게 와서 폐암에 걸린 이유를 물으면 담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담배도 폐암에 걸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무수히 많은 다른 문제들이 없었다면 담배 한가지만으로는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의 원인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암의 치료는 어떠한가? 몇몇 암은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늦게 발견되어 이미 많이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완치가 힘들다. 그렇다고 치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완치가 어렵다고 말하면 절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암은 고혈압처럼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중풍이나 심장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돌려 말하면 고혈압을 관리해서 중풍을 예방하는 것처럼 암을 관리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의사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환자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말하기보다는 보호자를 같이 오도록 해서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한다. 그 이유는 환자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환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를 해보면 완치가 가능한 암이라고 판정 받을 수도 있는데 암은 완치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암은 완치할 수도 있고 또한 관리하는 질환이므로 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약 1년 전쯤 고혈압으로 관리 받던 노인환자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워낙 고집이 센 환자라서 치료를 포기하고 지냈다. 얼마 전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야 큰 병원에 다니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검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지금은 외출도 못하고 하루를 통증과 씨름하면서 지낸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일찍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다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완치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지금보다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개원 초기부터 고혈압으로 관리 받던 다른 한 노인환자가 있다. 간암으로 수년전부터 서울에 있는 암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매년 해가 지날수록 얼굴빛은 조금씩 나빠지지만 벌써 수년째 건강하게 지내면서 몸이 성치 않은 아들을 매일 매일 돌보고 있다. 치료 받는 간암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폐로도 전이되고 크기가 커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암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암에 걸렸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암이 많이 진행되어 비록 완치할 수 없다고 해도 관리는 할 수 있는 병이다. 관리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암을 관리 받으며 아들을 간병하는 환자처럼 암에 걸렸더라도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암 환자로서 우리의 소명 또한 발견할 수 있다.

간호 조무사 구함 Tel. 254-0121(이력서 지참 내원 요망)

건강한 가족을 만들자!

건강한 가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튼튼하고, 건강하며, 적응력이 있는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고하고 있다. 그 일례로 스티네트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부부 행복과 부모-자녀 관계 민족도의 측면에서 아주 만족하다고 생각되는 3000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건강한 가족에게는 6개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 그들은 가족에게 헌신한다.

헌신은 어떠한 집안에서든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축구팀이거나 사업기관이거나 가정에서나 헌신은 성공의 필수요건이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자기 가족에게 고도의 충성을 바친다. 가족을 상담해 보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들은 가족 헌신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요구되는 가족의 특성을 확인하고 가족들 상호간에 고도로 헌신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건강한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가족들이 상당한 양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여러 사람을 만나 어린 시절 가정에 대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가장 가슴시린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동기에 단순히 가족과 함께 했던 실례를 들며 행복했다고 하고, 반대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가슴아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기억하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다. 할머니 집을 방문했던 일, 함께 여행했던 일 등을 기억한다. 요즘 대다수의 가족들이 피상적인 접촉만을 가지고 있을 뿐, 서로 간에 깊이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계획적으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3.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건강한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훌륭한 청취자요, 자기들의 생각들과 원하는 것들과 감정들을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열망해야 하고 그것을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평가해야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마도 가족문제의 대다수는 빈약한 의사소통으로 야기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서로에게 감사 표시를 한다.

문제의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비난과 원망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강한 가족은 정기적으로 서로에게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한다.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유익하다. 부모가 감사의 모델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 비슷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많은 문제의 가족들은 예리한 칼날과 같이 서로에게 퍼붓는 비판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비판은 건강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힘이다. 감사의 결핍은 '정서적 사막'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5. 영적으로 헌신한다.

건강한 가족은 같은 영적인 성향과 헌신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의 능력의 근원이시며 개인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는다.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분노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서로와의 관계에서 더 지원적이고 적극적이 될 것이다.

6.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이다.

건강한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어느 가족들과 달리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부딪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에게는 위기나 스트레스가 가족 식구들을 흩어지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악한 상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지원하고 건설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요즘 점점 무너져가는 가족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가족의 공통된 특징을 추구해봄은 어떨까? 금빈 여름휴가를 통해 분주한 삶 가운데 잊었던 건강한 가족의 특징들을 다시 회복해 보기를 제안한다.

[편집위원 최 영 조]

예 향

루즈벨트의 배상금 1달러짜리 재판

대통령 루즈벨트는 어느 날 한 잡지를 보다가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는 표현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루즈벨트는 이 문제의 잡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하였다. 여러 날의 재판을 통해 잡지사의 잘못이 인정되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귀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시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잡지사는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그때 판사의 말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달러입니다. 이만 재판을 마칩니다." 루즈벨트는 개인적인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았고, 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편집위원 최상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2008! 천국소망을 갖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길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춘천지역자활센터

Chun Cheon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춘천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춘천시가 지원하고 성공회 춘천나눔의집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나눔과 섬김, 협동과 연대의 나눔의집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삶과 역사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도우며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이다.



춘천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

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자활공동체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담을 통한 사업연계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참여주민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경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이다.



①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이윤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 ▶ 식품사업부 [☎ 242-6523] : 닭갈비 및 건강한 먹거리 유통 사업
- ▶ 유리구슬공방 [☎ 241-9481] : 비즈공예 분야의 강사 파견 및 악세서리 제작, 판매



②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 ▶ 사랑나눔빨래방 [☎ 241-0717] : 세탁환경이 열악한 가구 발굴을 통한 세탁(이불) 서비스 지원
- ▶ 방과후방문지도사업 [☎ 241-9408] :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후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 지도와 더불어 시간제 엄마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성장기의 아동 지원



- ▶ 장애통합교육보조지원사업 [☎ 253-4575] : 통합교육보조원을 교육, 양성 후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서비스 지원
- ▶ 사례관리도우미사업 [☎ 253-0316] :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심층상담과 관리를 통해 자활촉진을 유도하고, 자활욕구 파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 행복휴먼케어 [☎ 256-8809] :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무료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2) 돌봄사회서비스사업

춘천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① 사업 참여 대상자

-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춘천지역 차상위 및 차차상위자
- ▶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수급권자 이외 일반인 참여가능
- ▶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수급자) 및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②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돌봄사회서비스사업

-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252-7577] : 사업 참여주민의 간병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재가 간병 서비스 수행
- ▶ 노인돌보미 및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253-4575] : 거동 불편한 노인 및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사업
-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 253-4575] :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찾아가는 이동목욕차량 지원
- ▶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 253-4575] :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회복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전된 단계의 사업으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 새희망건축 [☎ 242-0461]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저소득층 주택관리전문 공동체
- ▶ 늘푸른환경 [☎ 242-8756] : 건물 및 학교 화장실 청소 용역 전문 공동체
- ▶ 약손엄마회 [☎ 252-1875] : 유료 간병인 공동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 음식물라이프 [☎ 242-8772] : 음식물 수거 및 재활용 처리 공동체
- ▶ 아가마지 [☎ 256-8809] : 산모와 신생아 돌보미 파견 공동체

4) 자활참여주민 운영조합 - "하나된 우리 조합"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인 자활참여자와 공동체구성원들이 신용협동조합의 정신인 자조, 자립, 협동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원의 저축성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향후 춘천지역 일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가계부채 정리와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금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자활참여주민의 운영조합이다.

- ▶ 가입비 : 2,000원 [가입문의 033-253-4575]
- ▶ 출자금 : 1계좌당 5,000원(5계좌 이상)

춘천지역자활센터 대표전화 : 033-253-4575 / 팩스 : 253-4576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3가 67-1 시민복지회관 6층
홈페이지 : http://www.ccjh.or.kr / 이메일 : ccjh21@hanmail.net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10기)

'정말 획기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훈련 수료자들의 입소문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미국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 단 1개월만에 입이 열린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고생과 중학 예비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생존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할 때 균형잡힌 영어로서 문법과 독해는 물론 회화가 됩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부터 본 아니라 중고대학생과 영어를 잘한다던 신인들에게까지도 이해 하기 쉽도록 문법을 단순 명료 하게 구조화하여 집중적으로 회화훈련을 시킴으로 문법, 독해, 회화를 동시에 체득시킬 수 있는 통합체이고 탁월한 영어훈련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영 목(강원대학교 교육학 강사)-

"미라클 영어는 영어의 핵심 맥을 해결 하고의 훈련 과정입니다.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나이 40이 되도록 풀지 못했던 영어에 맺힌 한을 이제야 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영어의 구조와 핵심을 그 기초 부터 확실하게 잡아줌으로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고도 핵심적인 이해를 깊게 합니다. 또한 강사의 탁월한 설명(문법 전체) 및 열정적인 교수와 훈련으로 훈련 자체에 영어를 향한 큰 자극과 도전과 흥미를 끊임없이 갖게 합니다. 운전 연하층을 따도 이 미라클 과정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영어실력의 기적과 같은 향상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확기적인 방법을 정확히 습득시켜 줍니다. 초, 중고생은 물론이고 영어에 한이 맺힌 분들에게 이 과정을 큰 기쁨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세인 교회 김근수목사-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영어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어가 너무 쉬웠어요. 친구들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고 물어봐요." "이렇게 쉬운 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만 했는데 그 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너무나 쉽게 정리가 되구 습득이 되구요, 대상 단어를 까워 외우며 독해를 해서 독해를 해놓고도 왔지는지 틀렸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2배이상 빨라졌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습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가들려요" "꿈에서 영어로 꿈을 꿨어요" "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성남에서 매일 왕복5시간 쉬지고 다니면서 훈련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의미가 있어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수준있는 완벽한영어구사 능력은 완벽한문법과 독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너무나 정확하게 습득이 돼요. 설날 받기 어려울 정도에요" "예비 중학생에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초5년에서 50대 주부까지-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하나하나 분명히 알게 되니까 재미있고 기대가 돼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요." -식사 초6년 -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영어가 잘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영어의 핵심이 한 눈에 들어와요. '중학교 때부터이런 식으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 한림대학 영문과재학생 -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학원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게 대학 때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 공개설명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설마 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훈련생을 대하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려나 하지만 훈련을 하는 날이 하루 하루 지나고영어 교재 기한장 한장 넘어갈 때마다 신뢰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하신이분 훈련생 모두가 만족 할만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들으면 그 어렵던 문법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배운 문법이 완전히 습득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더라구요. 놀랍지만 정말이랍니다. 간단한 예문도 몇 번을 반복해 외우던 지의 수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있는 것이죠. 정말 미라클훈련은 정말 미라클이랍니다. 긴 문장도 만만해 보이고, 훈련하다 보니 어느새 종이진내 말들에 제가 기록해지고, 일상생활 속의 일을 영어로말해 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는 생각도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아닌 언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실히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본훈련 단계 까지 수료생이 미국에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3>

몬트리올 예수 (Jesus Of Montreal)







필자가 대학졸업 전후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여 작가 나름대로 새롭게 깊이 해석한 작품들을 잇달아 읽으며 성경의 예수님을 보다 포괄적 보편적으로 바라보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성경의 본뜻을 벗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문제되기 십상이었다. 말하자면 예술적 심미적 가치를 위하여 예수님을 재단하고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19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이 쓴 〈기독광(基督狂), 을유출판사〉도 잊혀 지지 않는 특이한 책으로, 부랑아인 주인공이 복음에 감동되어 예수님시대 당시처럼 열두제자를 키느리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허가 된 어느 마을에서 펼쳐지는 내용이었다. 만약 현대에 예수님이 살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현대의 문명과 제도 아래에서 성경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환영받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 작품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다.

영화 〈몬트리올 예수〉(Jesus De Montreal, 1989)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그리스도 수난극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영적인 힘에 이끌려 현대의 각종 퇴폐성과 부조리에 맞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신의 시대에 직면하는 복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바로 하우프트만의 작품이 피오르게 한다.

영화평론가 홍성진은 "캐나다의 거장 데니 아르캉의 6번째 작품으로 종교와 신의 문제를 현대인의 시각으로 파고 든 걸작. 예수의 행적에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예수에 심취한 주인공이 그리스도의 고행처럼 타락한 현실과 싸우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89년 칸느-심사위원상, 90년 몬트리올-작품, 남우주연 등 9개 부문을 석권한 수작이다. 감독 데니 아르캉은 자신이 직접 쓴 위트 넘치는 시나리오를 통해 현재 우리의 삶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가시돋힌 농담을 던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인위적인 해석은 얼마나 위험한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점을 염두에 보고 감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정서가 보이고 성경에 대한 위험한 재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행히 이단적이 아닌 이질적인 문제에 그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음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영적 무장을 하고 이 영화를 본다면 복음전달과 선교명령에 있어 현대의 기독인들이 직면하는 문화적 장애요소들이 무엇인지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철실히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고 열정과 순수를 가지고 증거 해야 한다는 결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파격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영적 미성숙자 및 청소년과의 감상에 주의를 요함. 러닝타임 1시간55분.)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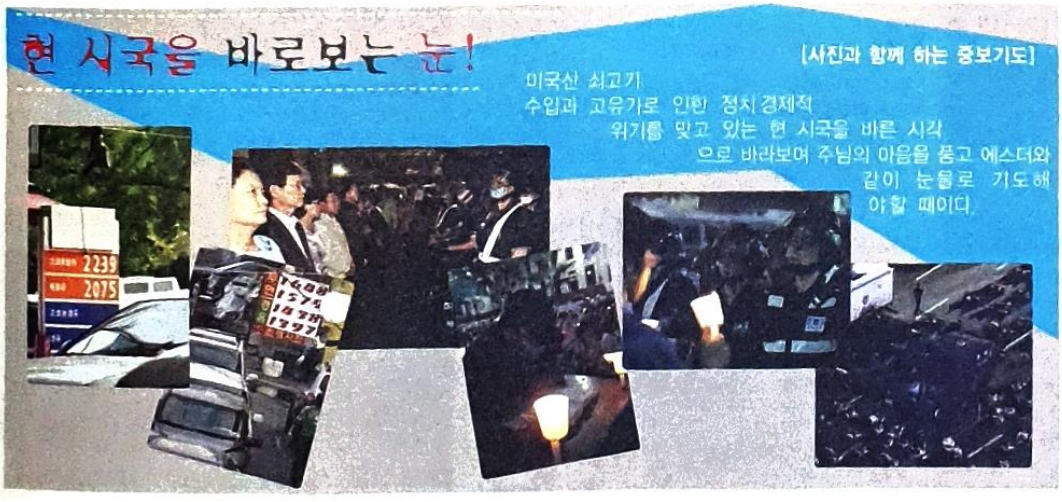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Y신협 04073-12-009998
새춘천 04060-12-000982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6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광염감리교회	
광영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성결교회	
새순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주향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춘천홀리클럽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디티피아	
앤투어	제시뉴욕	
김기태	김미경	김은선
김영창	김길홍	김진삼
김현철	김영명	박동환
신성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의석
오홍수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병연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주승희
최성호	최치광	한순수
한희현	황병찬	황정섭
허순영	홍순심	홍순복



춘천기독교연합회

회비 납부 교회(2008. 5월 이후)

농 협 301037-51-060105
Y신협 04073-12-004285
예금주 춘천기독교연합회

(연합기금마련을 위해 동참바랍니다)

광영교회	광염교회
나눔교회	동부교회
동신교회	새순교회
소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와이신협	은혜교회
제일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중부교회	평화교회

'미라클 영어(선교)회화 훈련소' (인트로10기)

1. 개강일시 : 2008년 8월 21일(목)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 8월 21일(목)~9월 18일(목)(매주월,화,목,금 6:40~10:10 PM) 1일3시간30분씩 1개월 16일간 총56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 인트로단계 9기, 교재 : Interchange(intro) -캠브리지 대학출판사-
4. 장 소 :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 키플 22번, 28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 초5~6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권 문화 영어권 메스컴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많은 말을 하게 한다.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 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여행 및 수유하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⑤ 경험자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멀리 원주에서도 방학에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⑥ 영어회화를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파톤특히에 대해 완벽히 해설을 습득할수 있으므로 에바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 8월 6일(수)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하세요) (☎ 264-0691, 011-396-8239, 010-8250-0889)
7. 공개설명회 및 체험사례 : 1차(7월 12일(토) 오후5시-6시30분) / 2차(7월 26일(토) 오후5시-6시30분) ※시간엄수 요망

※※ 훈련생 자격 : ①기독교 신앙인 ②본 훈련생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2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참고 없으시기바랍니다.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의 친절함이 있어요. 언제, 누구나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강산 통일기도회를 다녀오면서...

원 기 배 목사
권장감리교회

지난 6월 10-12일까지 2박 3일간 금강산 통일기도회에 다녀왔다. 이 민족의 아픔 고통 분단의 장벽 58년이란 긴 세월동안 같은 동족이면서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지내온 것, 아마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이 비극의 현장, 남북한이 갈라진 곳이라 생각된다.

이제 이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씻어내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감리교 서부연회 주최로 금강산에서 통일기도회를 했다. 이번이 4회 대회로 우리 모두는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그리고 저 북한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관심이 없거나 당연하다고 생각지는 않았는가? 또 이슬람 문화권 선교는 활발하게 하면서 그곳에 가면 존경받고 영웅시하며 심지어는 죽으면 순교자가 되기까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한다. 그럼에도 북한선교 남북평화통일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이들은 뭐라 하는가? 관심이 없다. 남의 일이다. 타종교 이슬람 문화권 심지어 저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 어려운 지역을 너도나도 선교하려고 하고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왜 북한선교를 하자 하면 시큰둥하기나 외면할까? 북한을 돕자고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부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면 안 될까요? 수해로 흉년이 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정말 먹지 못하고 1차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못해 고통 중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어라 하실까? 금강산기도회를 다녀와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이라 하면서 먼데 사람은 사랑해도 우리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성경은 "네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물며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강조하는 우리가 외면한다면 주님은 모라하실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마음 주옵소서.
저 북한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3일클럽 전도자 훈련
일시: 7월 28일(월) ~ 8월 1일(금) 4박5일 숙박훈련
장소: 춘천나눔교회
대상: 어린이 전도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교회학교 교사, 지도교역자, 선교사훈련생, 신학생 등)
등록금: 50,000원 7월 15일(2차 마감)까지
당일등록: 100,000원 (선착순 30명 모집)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dch/)

◆ 예스컴

1)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7월 19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2) 2008 YES COME SUMMER CAMP
"문제입화(問題入花)법한 무리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
일시: 8월 4일(월) ~6일(수)
장소: 충신수양관(경기도 마석)
강사: 박상훈 복사께서라스베가스성시화 사무총장)
등록비: 5만원(선착순 400명, 현등록 120명)
문의: 244-5400, 예스컴클럽club.cyworld.com/yescomebve
신유정간사010-5422-2321
한승연간사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
일시: 7월 1(화) - 5일(토) 장소: 제주도

2) 여름수련회 2차 미션(봉사,영어캠프)
일시: 7월 5일(토) - 7일(월) 장소: 제주도

3) 여름 단기선교
일시: 7월 9일(수) ~ 23일(수)
장소: 일본,동아시아,키르키즈스탄

4) 아가페 여름진료
일시: 7월 16일(수) ~ 19일(토)
장소: 남양주시 장애인마을
문의: 252-0642, 254-5776

5) 전국청소년 여름수련회
일시: (1차) 7월 28일(월) ~ 30일(수)
(2차) 7월 31일(목) ~ 8월 2일(토)
문의: 02-395-3260(심대선교부)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지역을 바꾸는 중보기도세미나
일시: 7월 1일 ~ 8월 19일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주제: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중보기도와 성령, 전략적인 기도, 춘천을 위한 기도
회비: 무료(헌금시간 있습니다)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춘천지부 찬양사역Secondary 컨반 세미나
일시: 7월 25일(금) ~ 26일(토) 금요일 오후7시, 토요일 오후2시
장소: 효자감리교회 회비: 2만원
강사: 양승훈형제(서울 화요모임 컨반 연주자)
등록방법: 입금 후 전화접수(마감7월19일)
입금계좌: 우체국 202267-02-086548 김민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252-1128
이원민간사 010-6750-8541

◆ IVF

1) 전국수련회
일시: 6월 30일(월) ~ 7월 5일(토)
장소: 횡성 상우리조트

2) 학년별 훈련
일시: 7월 7일(월) ~ 11일(금) 장소: IVF 회관
대상: 대학 1, 2학년

3) 필리핀 단기선교
일시: 7월 14일(월) ~ 30일(수) 장소: 필리핀 따끌로반
문의: 252-5200

◆ JDM

1) 전국대학어름집회
일시: 7월 1일(화) ~ 5일(토) 장소: 제주도

2) 청소년 수련회
일시: 7월 22일(화) ~ 25일(금)ㅠ 장소: JDM훈련센터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3) 기독직장인 수양회
일시: 7월 28일(월) ~ 8월 1일(금) 장소: JDM훈련센터
문의: 033)243-6701

◆ GBT성경신학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7월 7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rchcom@x21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새롭남개척선교단 모임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워십(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
일시: 7월 7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효자감리교회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1) 기독교세계관 독서토론모임
일시: 월, 화 오후5시-7시(진화문의후 방문요)
장소: 효신선교회 사무실(온의동 향토공예관 뒤)
문의: 011-9737-1919 방연규 재단총무

◆ 청소년 비전 캠프

일시: 8월 4일(월) ~ 12일(화)
장소: 중국 대련, 단동, 백두산
대상: 중·고등부 및 청년대학부
프로그램: 독립운동 유적지방문, 단동가나안농군학교 훈련, 조선족교회 집회, 백두산등정기도회 등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033)256-1260~1

✚ 고석연 가정의학과 의원
= 간호 조무사 구함 =
Tel. 033)254-0121(이력서 지참 내원 요망)

북한개방의 때를 준비하는 제3기 노동학교

- 주 제 -
돌을 제하라
(이사야 62:10)

남 자 : 1차 - 7월28일(월)~8월 1일(금) - 일반인1
2차 - 8월 4일(월)~8월 8일(금) - 청소년
3차 - 8월11일(월)~8월 15일(금) - 일반인2
장 소 : 삼수령목장(강원도 태백시)
주 최 : 삼수령 네번째강계획 & 예수원
후 원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 사 : 고무송목사, 성토모, 예수원, 벤토레이신부, 최요한형제
등록비 : 1차 - 15만원(각 기간 3주전 금요일 마감)
2차 - 17만원(각 기간 전주 금요일 마감)
입 금 : 국민은행 306301-04-163293 최요한
문 의 : 033)553-3395 / jasamsu@hanmail.net

내안의 타는 목마름 도전하세 성취하세
주님을향한 국악몸찬양단모집!!



후평동 인공폭포앞 1.5닭갈비 4층
열정넘치는 기독교인 모두 ☎ 010-3180-5330

춘천국악몸찬양선교단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6월 4일(수) 오전11시 본부에서 사무국 월례예배를 드렸다. 동신교회 이병서목사는 '화목'(고후5:18~19)을 제목으로 "연합은 교회간의 담을 헐고 화목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연합활동을 하는 분들께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 경찰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



춘천경찰시 교경협의회(대회장:이춘일목사)는 6월 1일 주일저녁부터 4일(수)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서울성복교회 이태희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2008년 춘천 복음화와 경찰가족을 위한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하였다.

■ 연합회장기 친선축구대회



춘천기독교 교역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와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가 주최하고 포이멘 주관으로 6월 2일(월)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 기독영화 상영



춘천성시신문편집위원회(위원장:최영조)는 6월 12일(목) 저녁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기독영화 "라스트씬이터(The Last Sin Eater)"를 상영하였다. 라스트씬이터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찾아 헤매다 복음을 접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한 소녀를 통해 마을이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내용이다.

■ 희망의 장학금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G마켓이 공동 시행하는 "희망장학금 후원사업"에 한림대 2학년 박혜미(19)양이 장학생으로 선정, 6월 10일 최기원 관장은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나라사랑 비상구국기도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는 6.25를 맞이 현 시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비상구국기도회를 6월 25일(수) 오후7시30분 평화감리교회에서 열었다. 이날 평화한국대표 허문영박사(통일연구원)는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제로 우리 기독인들은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시국에 흔들림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 것을 강조하였다. 춘천지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 정치의 안정, 통일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홀리클럽 춘천성시화 성령대부흥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 창립12주년 기념 장경동목사 초청 성시화 성령대부흥회가 6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새벽5시, 오전10시30분, 오후7:30분 하루 세 번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장경동목사의 열정적인 말씀잔치가 벌어졌다. 10일 오후1시에는 제1회 춘천시 교회친선탁구대회를 개최, 11개 교회 12개 팀이 단체전과 남녀단식 종목에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은 ▲순복음춘천교회, 준우승 ▲목회자탁구동호회, 공동3위 ▲안디옥감리교회 · 소양성결교회, 남자단식 우승 ▲김종우, 준우승 ▲김태희, 공동3위 ▲김왈욱 · 이상용, 여자단식 우승 ▲이선화, 준우승 ▲황금순, 공동3위 ▲이경희 · 손은경이 각각 차지했다.

준비된 성시지도자를 위한 2기 성시아카데미



2기 성시아카데미(원장:피종호)가 6월에도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성시본부 세미나실에서 계속되었다. 2일 서울이한교회 신기형목사는 "지도자와 영향력", 9일 태백삼수령센터 벤토레이신부는 "북한선교 생명의 강", 16일 여명학교 조명숙교감은 "새터민의 교육지원", 23일 포항성시화 정석관사무총장은 "성시화운동과 영역별 선교", 30일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정지웅박사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이란 제목으로 각각 성시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여 열정적인 강의로 도전을 주었다. 2기 성시아카데미는 11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7일 수료식을 갖는다.

■ 성시화를 위한 사랑 나눔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은 6월 16일(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재호사무총장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후원금은 지난 창립12주년 기념 장경동목사 초청 성시화 성령대부흥회 헌금 가운데 일부로 마련됐다. 이학규 회장은 "춘천이 성시화 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북강원결핵어린이돕기 발대식



북강원결핵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본부(본부장:조남진)는 6월 23일(월) 오후3시 춘천지하상가에서 홍보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

■ 에티오피아의 희망을 노래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대륙에서 유일하게 6천여 명의 지상군을 파견했던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 후손 등으로 구성된 '월드투게더 에티어린이합창단'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도시인 춘천을 방문하여 6월 24일(화) 오후7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펼쳤다.

■ 임신영 원로목사 추대 예식



'임신영 원로목사 추대 및 공로목사 추대 예식'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노회장:한기동) 주관으로 6월 22일(주일) 오후4시 춘천동부교회에서 열렸다. 임 목사는 1986년 7월 춘천동부교회 7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로 동부교회의 획기적인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고,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강원도기독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시화와 연합사역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고 강원노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강원회 공로목사로도 추대됐다.

■ 춘천홀리클럽 정기총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 2008년 정기총회를 6월 30일 동성교회에서 개최했다. 장효근목사(연합회 부회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란 제목의 개회설교를 시작으로 사업 및 예산 결산 승인 · 수립, 회칙개정 등의 안건을 협의 하였다. 총회에서는 2009년 선교대회, 회지발간, 순회기도회, 기관장 성경연구회, 홀리비전투어, 군부대 위문, 목표를 위한 캠페인, 기타 성시화운동과 관련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취재 · 김 미 경

믿음의 기업

반/석/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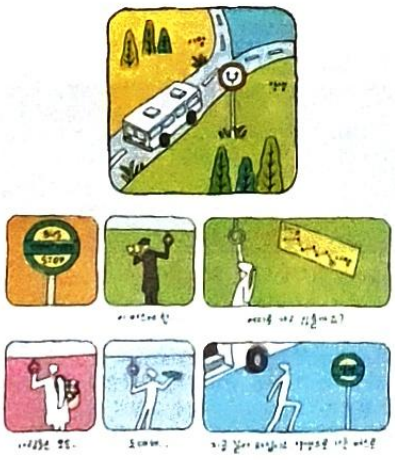
■ 숭어 향어 전문
■ 철갑 상어 전문
※ 숭어 향어 포장 1kg 10,000원

※저렴한 가격
※시선하고 깔끔한 맛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넓은 공간,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석 완비
※차량 항시 대기, 넓은 주차장



춘천시 동면 장학리 751번지(동면 강변로)
대표 고 재 호 장로 함 금 옥 권사(나눔교회)
(사단법인 한국숭어양식협회 부회장)
Tel. 033) 252-8567 HP 010-6388-8567
e-mail. jae-ho@hanmail.net

당신의 인생버스는?



당신이 탄 인생버스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버스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죄악과 절망, 그리고 분노와 고통으로 점철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 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껏 타고 온 버스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영생으로 달려가는 인생버스로
즉시 갈아타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교회소개란]

각 교회 전도지로 사용하세요.

진리의 길 · 4

춘천성시화운동본부